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변인 고찰
—전문직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and it's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the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 정 우
대학원생 이 은 주

Dep.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Univ.

Prof.; Jung Woo Lee

Graduate School student; Eun Ju Lee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조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ocialization level of household work of the employed and unemployed housewives and it's related variables in order to provide som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rational and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household task.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700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the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who lived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ile, t-test,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1) Socialization level of household work of the employed wives was a little below medium point

When the household work was devided into three subdomains, in the domain of food and shelter, the socialization level was far below medium point.

In the domain of clothes, the socialization level was a little higher than medium

point.

Socialization level of household work of the unemployed wives far below average.

When the household work was divided into three subdomains, in the domain of food, clothes and shelter, the socialization level was far below average, too.

Socialization level of household work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employment.

(2) Among the background variables, family income, household work helper, and frequency of leisure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cialization level of the employed wives.

Duration of marriage, housewife's education level and house income have a important effect on the socialization level of the unemployed wives background.

(3) Among the background variables of household work, performing competence of household work is powerful effect on the socialization level of the employed wives.

And as for the unemployed wives, performing competence of household task and recognition of the value of household work are significant variables.

(4) The psychological variable such as sex-role attitude gave no noticeable influence on the socialization level of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5) In conclusion, classifying the variances influencing on the socialization level of household work in a measure of respective effect, it appears to be performing competence of household task, frequency of leisure activities, house income, sex-role attitude and educational level in the order of their influences for the employed wives.

And as for the unemployed wives, it seems to be house income, educational level, performing competence of household work and frequency of leisure activities.

To the two sides, the rate of explanation is shown at 35%.

I. 서 론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의, 식, 주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 사회화시키며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곳인데 이러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은 세대를 초월해서 재생산되어 왔으나 산업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사회·문화적, 기술·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그 내용이나 형태가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현저한 변화는 자본재 생산의 발달,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기업들이 가정에 필요한 생활수단 및 서어비스 분야로 생산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근래 가정내에서 수행하던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산업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으로 대체되거나 경감되는 등 가사노동이 사회화되고 있는 점이다.(이기영, 1987)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가사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의, 식, 주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대량생산 및 소득증가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지만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집합주택의 증가, 핵가족화, 주부의 역할변화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요인들은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계속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가사노동의 사회화도 계속 진전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산업화에 따른 고도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현저하게 증가하여 1986년 조사에 의하면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6).

그러나 여전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부의 취업현상은 주부에게 가정밖의 생산활동과 가정내의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중역할부담과 시간부족을 야기시키며 가사노동수행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실은 시간절약형 제품이나 용역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다. 비취업주부의 경우도 적극적인 삶의 추구 자기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로 가사노동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가사노동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그런데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가정내에서 가사활동에만 전념하는 비취업주부와 가정외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가사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는 취업주부와 차이를 보이리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업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을 파악한 연구는 극소수(이용학, 1985; 이승미, 1989)이며 이 연구들도 일부영역에서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부를 단일대상으로 연구하였던 것을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로 구분하여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경향을 밝혀보고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에 어떤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가사노동의 수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가정관리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사노동의 사회화 개념

가정은 사회적, 경제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기능과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가족구성원의 재화나 용역을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 가사노동도 내용이나 범위가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에 대해 문숙재(1980)는 욕구충족에 필요한 일체의 재화와 용역을 가정내에서 생산하고 그 범위내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가정, 가능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가정내에서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노동하는 용역가정, 욕구충족을 위한 일체의 기능과 노동을 시장에 이전시키고 자원의 배분만을 하는 시장의존가정으로 나누었다.

오늘날의 가정은 용역가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따라 점차 시장의존가정으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 이와같이 종래 가정내에서 행해지던 가사노동 영역에 자본주의적 재화와 용역이 침투하여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산업노동에 의한 재화와 용역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가사노동의 사회화라고 한다.(大森和子外, 1981)

대체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개념은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산업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사기업에 의하여 개별가족에 사적으로 공급되는 영리적 사회화와 같은 협의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과 가사노동의 산업화와 같은 의미로서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다.

먼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을 살펴보면 Egnor는 과거의 자급자족 가계로부터 오늘날의 시장의존적 가계의 변천에 주목하면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가계내의 생산과정이 끊임없이 가정외적인 영역 즉 영리적이고 공적인 부문으로 전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이기영, 1981). Fisher도 이와같은 관점에서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이 시장을 통해 구입됨으로써 가사노동이 가정밖의 영역으로 전이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면서 "가사노동의 산업화"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또한 가사노동의 산업화를 가사노동의 국민경제로의 편입과정의 하나로 보고 있다(이기영, 1987). 역시 문숙재, 채옥희(1986)도 가사노동의 사회화란 가족원이 가정내에서 수행하던 가사노동을 가정외부의 여러가지 서비스로 대체하여 시간이나 노력의 경감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가사노동의 외부화" 또는 "가사노동의 산업화"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보았다. 그리고 영리적 사회화를 사기업노동(산업노동), 공동화를 호혜적노동, 공공적

사회화를 공적 노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김혜경(1985)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가사노동을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공동화하거나 집단화하는 것과 구별하여 생산의 방식이 사적이 아닌 사회적 생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생산화”라고 명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상당히 축소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부터 선진 자본주의사회의 경우 자본에 의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복지적 차원에서 국가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大森和子(1981)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란 소비의 사회화에 관계하는 것으로 가정생활의 기본적 기능의 일부인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 및 서서비스의 제공을 사적, 개별적인 가정으로부터 사회적 노동의 생산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다음의 3가지 측면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경제하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첫째로 자본주의적 사기업에 의해 소비비용이나 유통비용 또 사적 소비수단으로서 개별가족에 사적으로 공급되는 형태이며, 둘째는 복수의 개별가족이 분업, 협업하여 상호적으로 개별가족의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유형이다. 셋째는 사회적, 공공적 소비수단으로서 서서비스가 공공에게 공급되어지는 형태이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시장에서 구입함으로써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가정내의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 및 용역 생산과정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등 가정 외부의 영리적인 부분으로 이양하여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2. 취업주부와 가사노동의 사회화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밖의 생산활동과 가정내의 가사노동 등 이중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시간의 부족은 가사노동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

의 부족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주부의 취업과 가사노동 시간을 조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Walker, 1973 ; Vanek, 1974; Nickols & Metzen, 1978; 이정수, 1984)에 의하면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부의 취업이 반드시 남편의 가사분담을 증가시키지는 못한다(Nickols & Metzen, 1987; Sanik, 1981 Wheeler & Arvey, 1981; Abdel-Ghany & Nickols, 1983). 결국 취업주부는 가부장적 가족구조하의 성별 분업관념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여진속에서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담당해야 하면서 가정밖의 생산노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이중역할로 인해 많은 시간 제약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부 자신이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시장상품이나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대체시키고자 할 것이다.

한편 주부의 취업이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살펴보면 주부의 취업이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Nickols & Fox, 1983; Bellante & Foster 1984; 이기영, 1987; 김미향, 1989; 정지영, 1990)와 주부의 취업과 가사노동의 사회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Douglas, 1976; Stober & Weinberg, 1980; Goebel & Hennon, 1982; 정연주, 1987; 박해명, 1989) 등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 여부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많은 연구(이용학, 1985; 이기영, 1987; 이승미, 1989)에서 직업지위가 주부의 취업유무 자체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더 많은 차이를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같이 시간부족을 겪는 상황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직업지위에 따라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비전문직에 취업하는 주부들은 대체로 금전적 이유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Hafstrom & Dunsing, 1978) 취업에 의한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을 시장재화나 서서비스를 통해 대체하기 보다는 수면시간이나 여가시간을 줄임으로써(민경애, 1984; 이승미, 1989) 이를 극복하고자 하

므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있어서 전문직 취업주부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주부의 취업이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업상 직위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주부의 직업직위에 따라 소득, 임금수준, 취업동기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가 가사노동 사회화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 취업주부만으로 한정하여 취업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 및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그에 관련된 제 요인

1) 일반적 배경 변인

① 연 령 : 연령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기영, 1987; 문숙재, 홍성희, 1988). 가사노동영역별로 식생활영역의 반조리식품, 가공식품 등 편의식품의 이용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강정옥, 1984) 저장식품의 사회화도 연령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이원애, 1983; 이정주, 1985; 정연주, 1987; 이기춘 외, 1989). 이기춘 외(1989)는 회귀분석을 통해 연령이 의생활영역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있다.

② 학 력 : 학력과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관계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저장식품의 사회화 정도(강정옥, 1984; 정연주, 1987) 및 가공식품, 즉석식품 등의 편의식품 이용정도(강정옥, 1984; 정연주, 1987; 김미향, 1989), 외식(이기춘 외, 1989), 주식대용식품의 이용(이혜옥, 1984)도 학력과 정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 의생활(이재희, 1989), 주생활영역(이기춘 외, 1989)에서도 학력과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력은 모든 가사노동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결혼지속년수 : 결혼지속년수는 가사작업에 대한 숙련도나 경험, 적응 등을 반영하므로 가사수행

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기능하여(Heck, 1983)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지연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연주(1987)의 연구에서 결혼지속년수가 적을수록 저장식품의 사회화 수준이 높다고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지지하여 주고 있다.

④ 가족형태 : 가족형태가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실증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핵가족일수록 식생활영역에서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이기춘 외, 1989)가 있는 반면, 이와 상반된 연구도(강정옥, 1984) 존재한다. 의생활과 주생활영역에서도 가족형태에 따라 일률적인 차이가 없었다(이기춘 외, 1989)

⑤ 가족수 : 정연주(1987)의 연구에서는 가족수가 적을수록 저장식품의 사회화, 식사후 처리의 사회화가 높음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문숙재, 홍성희(1988), 정지영(1990)의 연구에서는 가족수와 가사노동의 사회화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마다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⑥ 가계소득 : 소득과 가사노동의 사회화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의 대부분이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이용학(1985), 한경선(1986), 정연주(1987) 연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조리된 반찬이나 편의식품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 주생활 영역에서도 소득과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정적상관을 보였다(이기춘 외, 1989).

⑦ 주거형태 : 정연주(1987)의 연구에 의하면 저장식품의 사회화 및 편의식품, 배달서비스, 외식의 이용정도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기춘 외(1989)도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이 의생활과 주생활부분의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적극적인 경향을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몇몇의 연구(문숙재, 홍성희, 1988; 이재희, 1989)는 주거형태에 따라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⑧ 가사조력자 유무 : 가사조력자는 가사수행에 대한 하나의 인적자원으로 작용하여 주부의 가사수행 역할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재 상품 및 서어비스의 이용에 소극적이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가

사조력자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가계소득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에 대한 촉진요인이 될 수 있다(이기영, 1987). 그러므로 가사조력자 유무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⑨ 여가활동 참여도 : 여가활동시간과 가사노동 시간과는 부적상관의 관계를 지닌다는 점에서(Nickols & Abdel Ghany, 1983) 여가활동시간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여가활동 참여도가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식생활영역에서의 가사노동 절감상품의 사용과 외식 및 주문음식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생활영역에서는 여가활동참여와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사노동의 영역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이기준 외, 1989).

2) 가사노동 관련 변인

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 : 가치란 명백하게 드러나거나 내재되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으로서 행위 단, 행동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개념이며(Kluckhohn, 1967), 인간 행동 결정시 근본적인 척도가 된다(문숙재, 1982), 따라서 가사노동을 가치있는 노동으로 인식할 경우 직접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재화와 용역에 의한 대채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가사노동 가치인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게 나타난 이기영(1987), 정지영(1990)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② 가사수행능력 : 가사수행능력이란 주부가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사노동 수행에 대하여 하나의 자원요인으로 기능한다. 왜냐하면 특정가사를 보다 잘 수행할 때 그 가사에 대하여 큰 책임을 가짐으로써(Wheeler, 1984)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사수행능력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간에 부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밝힌 이기영(1987), 정지영(1990)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③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 지각정도 :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 지각정도란 주부가 자신에게 부여

된 가사노동 역할을 직접수행함에 있어서 역할의 과중이나 시간자원의 부족에 의해 느끼는 시간부족 정도를 의미한다(이승미, 1989). 시간제약을 많이 느끼는 주부일수록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해소방안으로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가사노동의 양을 시장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되므로써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촉진된다(조성은, 1991).

3) 심리적 변인

① 성역할태도 : 일반적으로 남편의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고 부인은 표현적 역할을 수행(Takott, Parsons & Bales, 1955)함으로써 성에 따라 분리된 성역할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성역할태도는 여성성과 가사역할을 직결시킴으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쳐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집단이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정연주(1987), 정지영(1989)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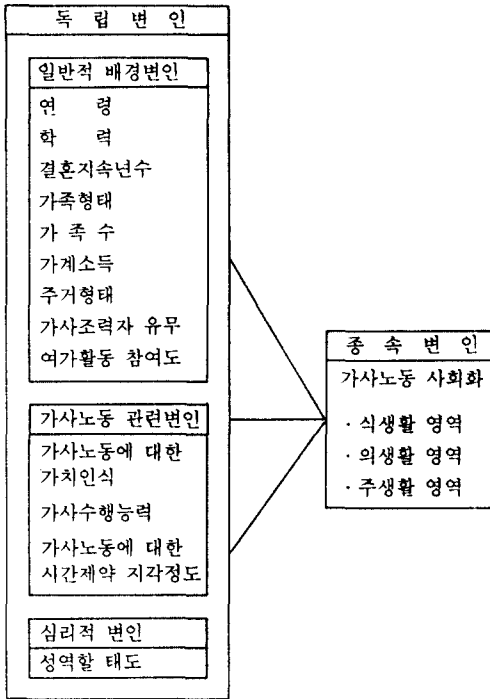
〈연구문제 1〉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며,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라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사노동 관련 변인에 따라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심리적 변인에 따라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



(그림 1) 연구모형

의 사회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2. 조사도구의 작성

1) 가사노동 사회화 척도

가사노동의 사회화 척도는 강정옥(1984), 정연주(1987), 이기영(1987), 이기춘 외(1989)의 연구를 참고로 해서 식생활영역, 의생활영역, 주생활영역을 하위영역으로 하여 연구자가 총 5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내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 로 나타났으며 의, 식, 주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0.68, 0.71, 0.71였다.

2)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활동 참여도의 척도는 이현주(1985), 장윤희(1990)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59$ 이다.

3)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식

선행연구(박인경, 1986 ; 이기영, 1987 ; 김성희, 1988)를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총 10문항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59$ 로 약간 낮은 신뢰를 나타냈다.

4)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지각정도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 지각척도는 주부가 세분화된 가사작업 영역별과제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시간부족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의숙(1984), 이기영(1987), 한경미(1987)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 지각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0$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 가사수행능력

가사수행능력 척도는 Walker와 Woods(1976), 이정우(1972), 김의숙(1984), 이기영(1987), 한경미(1987)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의 각 영역별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는 .87이었다.

6)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 척도는 선행연구(Scazoni, 1975 ; Osmond & Martin, 1975 ; Parelius, 1975 ; 이형실, 1985 ; 이기영, 1987)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예비조사에서 가정과 직업역할의 2개 역할영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2개의 문항은 제외시키고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는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 신뢰도 검사의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취업주부와 전문직 주부 중에서 의도적으로 추출하였다. 취업여성중 전문직 주부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직업지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 주부를 구분할 때는 홍두승(1983)과 이용학(1985)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교수, 교사, 의사, 약사, 간호원 등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된다. 연구대상자의 배경 변인을 고려하여 강동구, 도봉구, 서초구의 K.D.S 유치원 강남구, 은평구의 E.Y 국민학교, 관악구, 강서구, 중랑구의 D.S.M 중학교, 종로구, 서초구의 K.S 고등학교의 여교사 및 학생들의 어머니, 대학교 3개 교의 여대학생들의 어머니들과 용산구 S병원, 마포구 S병원의 의사, 약사, 간호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는 1991

년 1월 5일부터 1월 13일 사이에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991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취업주부 350부 비취업주부 350부 등 총 7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59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취업주부 247부, 비취업주부 240부 등 총 48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 방법

질문지의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신뢰도,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SAS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집 단 배경변인	구 분	취업주부 (N=247)		비취업주부 (N=240)		전 체 (N=487)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 령	34세 이하	131	53.0	53	22.1	184	37.8
	35 ~ 39세	48	19.4	67	27.9	115	23.6
	40 ~ 44세	42	17.0	67	27.9	109	22.4
	45세 이상	26	10.5	53	22.1	79	16.2
	계	247	100	240	100	487	100
결 혼 지속년수	10년 이하	148	59.9	59	24.5	207	42.5
	11 ~ 15년	43	17.4	63	26.3	106	21.8
	16 ~ 20년	36	14.6	75	31.3	111	22.8
	21년 이상	20	8.1	43	17.9	63	12.9
	계	247	100	240	100	487	100
학 력	중졸이하	0	0	32	13.3	32	6.6
	고졸·전문대졸	89	36.0	128	53.3	217	44.6
	대 학 졸	136	55.1	80	33.3	216	44.4
	대학원졸	22	8.9	0	0	22	4.5
	계	247	100	240	100	487	100
가족형태	핵 가 족	159	64.4	203	84.6	362	74.3
	확대가족	88	35.6	37	15.4	125	25.7
	계	247	100	240	100	487	100

집 단 배경변인	구 분	취업주부 (N=247)		비취업주부 (N=240)		전 체 (N=487)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 족 수	3명 이하	82	33.2	28	11.7	110	22.6
	4명	78	31.6	109	45.4	187	38.4
	5명	46	18.6	67	27.9	113	23.2
	6명 이상	41	16.6	36	15.0	77	15.8
	계	247	100	240	100	487	100
소 득	79만원 이하	17	6.9	52	21.7	69	14.2
	80 ~ 90만원	15	6.1	44	18.3	59	12.1
	100~149만원	77	31.2	80	33.3	157	32.2
	150~199만원	79	32.0	44	18.3	123	25.3
	200만원 이상	59	23.9	20	8.3	79	16.2
계	247	100	240	100	487	100	
주거형태	단독주택	100	40.5	103	42.9	203	41.7
	집합주택	147	59.5	137	57.1	284	58.3
	계	247	100	240	100	487	100
가사조력자 유 무	가정부 파출부	41	16.6	23	9.6	64	13.1
	가족원	164	66.4	142	59.2	306	62.8
	없 다	42	17.0	75	31.3	117	24.0
	계	247	100	240	100	487	100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2.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일반적 경향 및 차이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전반적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 및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사회화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것은 <표 2>와 같다.

전체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주부의 경우 138점 만점에 평균이 60.34로 측정치의 중간점수(6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식생활 영역은 78점만점에 평균이 33.81로 중간점수 39점에 다소 못미치는 수준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표 2>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수준 및 차이

가사노동 사 회 화	취업주부 (N=247)		비취업주부 (N=240)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사 노동	60.34	13.92	56.63	15.68	2.77**
식생활 영역	33.81	8.32	31.58	9.12	2.82**
의생활 영역	16.19	3.78	14.75	4.01	4.07***
주생활 영역	10.35	6.19	10.30	6.22	0.09

* P<.05 ** P<.01 *** P<.001

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의생활영역은 32점만점에 평균이 16.19로 중간점수(16점)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생활영역은 28점만점에 평균이 10.35로 중간점수 14에 훨씬 못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전체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138점 만점에 평균이 56.63으로 중간점수 69점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상당히 낮았으며 하위영역별로 식생활영역은 78점 만점에 31.58로 의생활영역은 32점 만점에 14.75로 주생활영역은 28점 만점에 10.30으로 각각 중간점수 39, 16, 14에 못미치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볼 때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같이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영역에서도 식생활영역($p < .01$), 의생활영역($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높은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 결과는 취업에 의한 가사노동 대체의 필요성 때문에 취업주부가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적극적인 경향을 나타낸다는 이기영(1987), 정연주(1987), 정지영(1990)의 연구를 지지해 준다.

한편 주생활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재희(1989)의 연구에서 전문적 기술과 함께 상품의 개별성이 높기 때문에 대중화가 어려워 이용률이 낮기 때문이라고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3. 각 변인에 따른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

1) 일반적 배경 변인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

〈연구문제 2〉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반적 배경 변인별로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① 연령: 연령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취업주부의 경우 주생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이 점은 주생활영역이 고도의 전문성과 신체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의생활, 식생활영역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고연령층의 전문직 주부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의생활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게 나타나 취업주부와는 상반된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주부의 연령과 의생활영역의 상품대체정도와는 부적관계를 갖는다 는 이기춘 외(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② 학력: 학력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주부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위영역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취업주부는 학력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을 나타냈다.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촉진된다는 조운경(1988), 정지영(1990)의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식생활($p < .001$), 의생활($p < .05$), 주생활($p < .001$) 등 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③ 결혼지속년수: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 취업주부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주생활영역($p < .001$)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10년이상 집단이 10년이하 집단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지속년수가 짧은 취업주부일수록 가사노동을 시장의 상품과 서어비스로 대체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밝힌 이연숙 외(1991) 연구와 상반되는 경향이다.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5년이하 집단이 타집단들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1$). 하위영역별로 식생활영역($p < .001$), 의생활영역($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선행연구(한경선, 1986; 정연주, 1987; 이기춘 외, 1989; 김미향, 1989)와 일치하며 취업주부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④ 가족형태: 가족형태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영역별로는 취업주부의 경우에서만 식생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즉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직 취업주부에

〈표 3〉 일반적인 배경 변인과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n=247)

배경 변인	구 분	N	식 생활	D.	의 생활	D.	주 생활	D.	전 체	D.
			영 역 평균점수		영 역 평균점수		영 역 평균점수		가사노동 평균점수	
연령	34세이하	131	33.51		16.44		8.83	C	58.78	
	35~39세	48	32.44		15.96		10.65	CB	59.04	
	40~44세	42	35.60		16.12		12.05	B	63.76	
	45세이상	26	34.96		15.46		14.73	A	65.15	
	F 검증		1.07		0.76		6.59***		1.96	
학력	중졸이하	0								
	고졸, 전문대졸	89	32.45	B	16.49		9.57	A	58.54	
	대 학 졸	136	34.28	BA	16.14		10.84	A	61.26	
	대학원졸	22	36.36	A	15.23		10.41	A	62.00	
	F 검증		2.47		1.01		1.08		1.20	
결혼 지속 년수	10년이하	148	32.83		16.37		9.03	B	58.22	
	11~15년	43	34.33		16.47		12.23	A	63.02	
	16~20년	36	36.06		15.69		12.19	A	63.94	
	21년이상	20	33.15		15.65		13.60	A	62.40	
	F 검증		1.37		0.34		5.56***		1.73	
가족 형태	핵 가족	159	34.60		16.16		10.27		61.04	
	확대가족	88	32.36		16.23		10.50		59.09	
	T 검증		-2.04*		0.13		0.28		-1.05	
가족 수	3명이하	82	34.43		16.10		9.44		59.96	
	4명	78	33.87		16.41		9.83		60.12	
	5명	46	34.09		16.46		11.20		61.74	
	6명이상	41	32.12		15.63		12.22		59.98	
	F 검증		0.73		0.47		2.34		0.19	
소득	79만원이하	17	32.47		15.35		8.24	C	56.06	B
	80~99만원	15	32.16		15.77		9.09	CB	57.01	B
	100~149만원	77	33.82		16.42		10.27	CB	60.51	BA
	150~199만원	79	35.73		16.67		12.53	A	64.93	A
	200만원 이상	59	35.83		16.54		12.17	BA	64.54	A
	F 검증		1.97		0.71		3.14*		3.38*	
주거 형태	단독주택	100	32.80		16.09		10.86		59.75	
	집합주택	147	34.49		16.25		10.01		60.75	
	T 검증		1.57		0.33		-1.06		0.55	
가사 조력 자 유무	가정부, 파출부	41	38.61	A	16.81		13.88	A	69.29	A
	가 족	164	32.57	B	15.88		9.09	B	57.54	B
	없 다	42	33.93	B	16.76		11.86	A	62.55	B
	F 검증		9.21***		1.56		12.36***		13.58***	
여가 활동 참여 도	하	85	32.08	B	15.99		8.51	B	56.58	B
	중	102	34.20	A	16.57		10.83	A	61.60	A
	상	60	35.58	A	15.82		12.15	A	63.55	A
	F 검증		3.37*		0.92		6.93**		5.30**	

(D.=Duncan's)

* P<.05 ** P<.01 *** P<.001

〈표 4〉 일반적 배경 변인과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n=240)

배경 변인	구 분	N	식 생활		의 생활		주 생활		전 체	
			영 역	D.	영 역	D.	영 역	D.	가사노동	D.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연령	34세이하	53	34.23		16.70	A	10.92		61.85	
	35~39세	67	31.34		15.28	B	9.64		56.27	
	40~44세	67	31.18		14.87	B	11.61		57.66	
	45세이상	53	30.70		12.85	C	9.11		52.66	
	F 검증		0.71		5.56***		1.39		1.69	
학력	중졸이하	32	25.56	C	13.62	B	5.94	C	45.13	C
	고졸, 전문대졸	128	30.91	B	14.48	BA	9.38	B	54.78	B
	대 학 졸	80	35.04	A	15.63	A	13.52	A	64.19	A
	대학원졸	0								
	F 검증		14.55***		3.52*		23.86***		22.13***	
결혼 지속 년수	10년이하	59	35.71	A	16.65	A	11.10		63.45	A
	11~15년	63	33.89	B	15.71	B	10.03		59.64	B
	16~20년	75	28.88	B	13.48	B	9.64		52.00	B
	21년이상	43	31.21	B	14.14	B	10.67		56.02	B
	F 검증		4.72***		4.94***		0.41		3.62**	
가족 형태	핵 가 족	203	31.63		14.78		10.24		5.64	
	확대가족	37	31.30		14.59		10.68		56.57	
	T 검증		-0.20		-0.26		0.39		-0.03	
가족 수	3명이하	28	35.07		15.71		11.11		61.89	
	4명	109	31.29		14.83		10.54		56.66	
	5명	67	30.87		14.57		9.36		54.79	
	6명이상	36	31.03		14.11		10.72		55.86	
	F 검증		1.60		0.90		0.78		1.40	
소득	79만원이하	52	27.64	C	13.21	C	6.96	D	47.81	C
	80~99만원	44	30.84	CB	15.18	B	8.64	DC	54.66	B
	100~149만원	80	31.59	CB	14.80	CB	10.96	CB	57.35	B
	150~199만원	44	33.73	B	15.02	CB	12.46	B	61.21	B
	200만원 이상	20	38.65	A	17.00	A	15.30	A	70.95	A
	F 검증		6.71***		3.84**		10.85***		11.03***	
주거 형태	단독주택	103	29.01		14.37		9.66		53.04	
	집합주택	137	33.50		15.04		10.79		59.33	
	T 검증		3.89***		1.28		1.39		3.13**	
가사 조력 자 유무	가정부, 파출부	23	39.87	A	17.39	A	15.87	A	73.13	A
	가 족	142	30.73	B	14.51	B	9.18	B	54.36	B
	없 다	75	30.68	B	14.40	B	10.73	B	55.87	B
	F 검증		11.45***		5.75***		12.90***		16.13***	
여가 활동 참여 도	하	58	28.86	B	13.62	B	7.64	B	50.12	C
	중	99	30.68	B	14.57	BA	10.61	A	55.85	B
	상	83	34.54	A	15.76	A	11.81	A	62.11	A
	F 검증		7.88***		5.21**		8.36***		11.05***	

(D.=Duncan's)

* P<.05 ** P<.01 *** P<.001

있어서만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더 적게 가사노동의 상품대체경향을 보인다는 이기영(198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이는 전문직 주부가 확대가족의 형태를 많이 취하며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이연주, 1984; 이승미, 1989) 가사노동의 수행시 인적자원으로 가능하다는 데서 기인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⑤ 가족수: 가족수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도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⑥ 가계소득: 소득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주부의 경우 유의한 차이($p < .05$)가 있었으며 150~190만원 집단이 가장 높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을 나타냈고 200만원 이상, 100~149만원, 80~99만원, 79만원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볼 때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소득에 의해 향상되지만 그 증가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주생활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p < .05$)를 나타냈다.

비취업주부의 경우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아지는 유의한 결과($p < .001$)를 나타냈으며 하위영역별도 식생활($p < .001$), 의생활($p < .01$), 주생활($p < .001$) 등 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같이 전영역에서도 공통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소득이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시사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Stober & Weinberg, 1987; 이기영, 1987; 이기춘 외 1989)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⑦ 주거형태: 주거형태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주부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p < .01$)를 보였으며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주부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저장식품 저장장소의 부족과 밀집된 시장조건에 기인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하위영역별로는 식생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으며 이는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주부가 손질된 식품재료와 반조리식품 및 가공식품의

사용빈도가 높다고 밝힌 이영분(1982), 강정욱(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⑧ 가사조력자 유무: 가사조력자 유무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취업주부의 경우 식생활영역, 주생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었고,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다. 즉 유사한 가사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무상의 가사조력자가 있는 경우나 가사조력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을 보였다. 가사고용인을 고용하는 가계의 일차적속성 즉 고학력 및 고소득 가정이라는 점에서 기인되었다는 견해(이기영, 1987)로 설명할 수 있겠다.

⑨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활동 참여도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주부의 경우 유의한 차이($p < .01$)가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 참여도가 중이상 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식생활 영역($p < .05$), 주생활 영역($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취업주부의 경우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은 집단이 의미 있게 높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을 나타냈으며($p < .001$) 하위영역별로는 식생활($p < .001$), 의생활($p < .01$), 주생활($p < .001$) 등 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부가 여가활동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그 결과 부족한 시간을 가사노동시간을 절약시켜주는 재화나 용역을 이용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점차 높아지리라고 예측된다.

2) 가사노동 관련 변인과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
가사노동 관련 변인별로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주부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하위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비취업주부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 평가가 높은 집단이 가장 낮은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을 나타냈다. 이

〈표 5〉 가사노동관련 변인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

취업 여부	가사노동 관련변인	구분	N	식생활영역	D.	의생활영역	D.	주생활영역	D.	전체 가사노동	D.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취업 주부 (N=247)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	하	81	33.94		16.93		10.83		61.69	
		중	116	33.79		15.64		9.88		59.31	
		상	50	33.62		16.26		10.68		60.56	
		F		0.02		2.82		0.64		0.70	
	가사수행능력	하	109	35.27	A	17.54	A	10.60		63.40	A
		중	98	33.08	BA	15.76	B	10.45		59.29	A
		상	40	31.60	B	13.55	C	9.45		54.60	B
		F		3.52*		20.02***		0.52		6.61**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 지각정도	하	34	32.91		16.56		12.59		62.06	
		중	101	33.76		15.55		10.23		59.54	
		상	112	34.12		16.65		9.79		60.55	
		F		0.27		2.50		2.74		0.44	
비취업 주부 (N=240)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	하	61	35.84	A	15.66		12.05	A	63.54	A
		중	93	30.52	B	14.45		9.90	B	54.87	B
		상	86	29.70	B	14.43		9.50	B	53.63	B
		F		9.79***		2.11		3.38*		8.61***	
	가사수행능력	하	39	33.82		16.21	A	12.05	A	62.08	A
		중	98	32.46		15.30	A	11.14	A	58.90	A
		상	103	29.88		13.68	B	8.85	B	52.41	B
		F		3.49		7.53***		5.47**		7.50***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 지각정도	하	108	30.02		14.68		9.69		54.38	
		중	100	32.66		14.80		10.91		58.37	
		상	32	33.44		14.81		10.50		58.78	
		F		3.00		0.03		1.03		2.05	

(D.=Duncan's)

* P<.05 ** P<.01 *** P<.001

리한 결과는 가사노동을 가치있는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주부가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을 직접 수행한다는 이기영(1987), 조운경(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위영역별로는 식생활영역(p<.001)과 주생활영역(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② 가사수행능력 : 가사수행능력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주부(P<.01), 비취업주부(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사수행능력이 상인집단이 중·하집단에 비해 낮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을 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취업주부의 경우 식생활영역(P<.01)과 의생활영역(p<.001)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의생활(p<.001)과 주생활영역(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로써 볼 때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가사노동의 수행능력이 부족할수록 가사노동을 산업노동에 의한 재화나 용역으로 대체화시키려는 경향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가사노동의 수행의 질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과는 정적인 관계를 지닌다는 Wheeler(1984)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③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 지각정도 :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모두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 지각정도에 따라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유의한 차

〈표 6〉 심리적 변인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

취업 여부	심리적 변인	구분	N	식생활영역	D.	의생활영역	D.	주생활영역	D.	전체 가사노동	D.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취업주부 (N=247)	성역할태도	상	104	33.44		16.09		11.37		61.91	
		중	100	33.51		16.03		10.92		60.46	
		하	43	33.83		16.38		9.39		59.59	
		F		0.19		0.23		2.30		0.43	
비취업주부 (N=240)	성역할태도	상	35	30.24		14.72		10.17		55.14	
		중	101	32.28		14.99		10.33		57.59	
		하	104	33.51		14.14		10.63		58.29	
		F		2.23		0.58		0.07		0.86	

(D.=Duncan's)

* P<.05 ** P<.01 *** P<.001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하위영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과 심리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듯이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모두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하위영역에서도 각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노동사회화태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조운경(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하여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가사노동의 사회화수준에 영향력을 끼치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이들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 연령 변인을 제외시키고 모형내의 모든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변수들이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1)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사수행능력($\beta = -0.364$), 여가활동 참여도($\beta = 0.270$), 소득($\beta = 0.156$), 성역할태도($\beta = -0.154$), 학력($\beta = 0.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의 변인에 의하여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은 35%가 설명되고 있다. 하위영역별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식생활영역에서는 가사수행능력($\beta = -0.271$), 여가활동 참여도($\beta = 0.237$), 학력($\beta = 0.176$), 성역할태도($\beta = -0.152$), 소득($\beta = 0.036$)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약 19%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영역에서는 가사수행능력($\beta = -0.440$)과 여가활동 참여도($\beta = 0.125$)가 주요 예측 변인을 약 20% 설명되고 있었다. 주생활영역에서는 여가활

* 1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간에 성역할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취업주부의 성역할태도가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t=8.60***)

〈표 7〉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에 대한 중회귀분석(n=247)

종 속 변 인 : 전체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		
독 립 변 인	B(SE B)	β
가사수행능력	-0.465(0.082)	-0.364***
여가활동참여도	0.793(0.180)	0.270**
소 득	1.938(0.770)	0.156*
성역할태도	-0.229(0.130)	-0.154*
학 력	1.092(0.463)	0.149*
상 수	30.968	
R ²	0.347	

종 속 변 인 : 식생활 영역		
독 립 변 인	B(SE B)	β
가사수행능력	-0.207(0.051)	-0.271***
여가활동참여도	0.416(0.111)	0.237***
학 력	0.774(0.285)	0.176**
성역할태도	-0.135(0.063)	-0.152*
소 득	0.998(0.473)	0.036*
상 수	18.733	
R ²	0.187	

종 속 변 인 : 의생활 영역		
독 립 변 인	B(SE B)	β
가사수행능력	-0.153(0.023)	-0.440***
여가활동참여도	0.100(0.050)	0.125*
상 수	23.055	
R ²	0.204	

종 속 변 인 : 주생활 영역		
독 립 변 인	B(SE B)	β
여가활동참여도	0.278(0.081)	0.212***
결혼지속년수	0.173(0.063)	0.206**
가사수행능력	-0.106(0.037)	-0.186**
학 력	0.566(0.208)	0.174**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지각정도	-0.123(0.045)	-0.167**
상 수	2.570	
R ²	0.216	

〈표 8〉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에 대한 중회귀분석(n=240)

종 속 변 인 : 전체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		
독 립 변 인	B(SE B)	β
소 득	2.345(0.621)	0.230***
학 력	1.243(0.390)	0.209**
가사수행능력	-0.285(0.087)	-0.196**
여가활동참여도	0.574(0.186)	0.190**
상 수	30.968	
R ²	0.347	

종 속 변 인 : 식생활 영역		
독 립 변 인	B(SE B)	β
여가활동참여도	0.332(0.114)	0.189**
소 득	1.022(0.382)	0.172**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지각정도	0.188(0.077)	0.144**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	-0.184(0.086)	-0.143*
주 기 형 태	-2.304(0.106)	-0.125*
상 수	17.143	
R ²	0.273	

종 속 변 인 : 의생활 영역		
독 립 변 인	B(SE B)	β
가사수행능력	-0.080(0.025)	-0.216**
결혼지속년수	-0.114(0.044)	-0.187**
여가활동참여도	0.139(0.053)	0.180**
소 득	0.377(0.177)	0.144*
상 수	16.630	
R ²	0.196	

종 속 변 인 : 주생활 영역		
독 립 변 인	B(SE B)	β
학 력	0.771(0.160)	0.327***
소 득	0.947(0.256)	0.234***
가사수행능력	-0.110(0.036)	-0.191**
상 수	2.805	
R ²	0.299	

* P<.05 ** P<.01*** P<.001

동 참여도($\beta=0.212$), 결혼 지속년수($\beta=0.206$), 가사수행능력($\beta=-0.186$), 학력($\beta=0.174$),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 지각정도($\beta=-0.167$)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2%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사수행능력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에 큰 영향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가사노동은 잘 수행할수록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한다는 Wheeler(1964)와 이기영(1987)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재입증하는 것이다.

2)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취업주부의 경우 소득($\beta=0.230$)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학력($\beta=0.209$), 가사수행능력($\beta=-0.196$), 여가활동 참여도($\beta=0.190$) 순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아짐이 밝혀졌으며, 이들 4개 변인에 의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35%가 설명되고 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식생활영역에는 여가활동 참여도($\beta=0.189$), 소득($\beta=0.172$),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 지각정도($\beta=0.144$),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beta=-0.143$), 주거형태($\beta=-0.125$)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의 변인은 27%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의생활 영역은 가사수행능력($\beta=0.216$), 결혼지속년수($\beta=0.187$), 여가활동 참여도($\beta=0.180$), 소득($\beta=0.144$)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20%를 설명하고 주생활영역에서는 학력($\beta=0.327$), 소득($\beta=0.234$), 가사수행능력($\beta=-0.191$)이 주요 예측 변인으로 3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주부보다 소득과 학력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취업주부의 경우 평균이 중간점에 가까웠으며, 비취업주부의 경우 중간점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경우 부족한 시간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사노동의 수행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을 절감시킬 수 있는 대체 재화나 용역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낮은 점은 많은 문제점을 시사한다. 특히 앞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이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핵가족의 증가 등으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로부터의 가사노동에 대한 조력이 적어짐에 따라 보다 많은 주부가 이중역할속에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합리화 및 적정화를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취업주부 자신이 가사노동은 주부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가족구성원의 협력도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취업으로 인해 획득된 금전자원을 가능한 한 여건하에서 시장재화나 용역의 이용을 통해서 절감시켜야 할 것이며, 가정외적으로는 취업주부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적 제반여건의 완비가 요구된다.

하위영역별로는 취업주부의 경우 의생활영역에 있어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기성품의 다양화와 의류시장의 다변화에 기인된 결과라고 여기진다. 앞으로 식생활과 주생활영역에 있어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시장이 다변화된다면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범주가 넓어지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근대적인 성역할태도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성역할태도는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취업주부의 근대적인 성역할태도에도 불구하고 현 가정생활에서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취업주부의 근대적 성역할태도가 이론적인 수용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뿐 현실변혁을 위한 수행의 단계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탐색을 통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심변인으로는 취업주부의 경우 가사수행능력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가계소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은 각각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향을 예측하게 한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은 지속적인 가계소득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여성교육수준의 향상은 합리적 사고를 배양함으로써 전통적 가사기술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가사기술의 계승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개발 및 보급으로 우리 가정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관리자의 주체인 주부에게 가정내의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가정관리능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일차적으로는 충족될 수 있는 욕구를 인식하여 가사노동을 적절한 수준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상품이나 용역으로 대체시키며,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간파하여 가정내부에서 특별한 양질의 재화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가정경제적 측면, 가사노동의 여가화적인 측면, 가족구성원의 역할분담측면, 생활문화화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가정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요소의 적절한 조화가 선행되었던 토대속에서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가사노동의 수행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가정관리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측에서는 제품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특히 식생활영역에서의 영양과 위생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정부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상품개발, 서어비스 시설의 제공등이 가족의 진정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경제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경제변동에 따라 규정될 것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보기 위해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확대연구가 계속된다면 이상적인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방향정립에 구체적이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1) 강정옥,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실태조사", 건대 석사학위논문 1984.
- 2) 김미향, "도시가계의 식료품 소비구조 분석",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9.
- 3) 김성희,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평가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 4) 김의숙,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Ⅱ)",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3집, 1984.
- 5) 김혜경, "가사노동 이론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5.
- 6) 문숙재, "문화가 가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18권 3호, 1980.
- 7) ———,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본 가정의 안전기능",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4호, 1982.
- 8) ———, 채옥희, 가사노동, 서울: 신광, 1986.
- 9) ———, 홍성희,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6권 3호, 1988.
- 10) 민경애,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대한 연구", 연대석사학위논문, 1986.
- 11) 박인경, "도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 1986.
- 12) 박해경, "취업주부의 구매행동 및 그에 대응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13) 이기영,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본 가사노동의 의의와 그 전개", 고대 사대논집, 제6집, 1981.
- 14) ———,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7.
- 15) 이기춘 외, "산업사회의 소비자행태 연구-서울

- 시 가계의 의·식·주생활 관련 상품대체와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 27권 2호, 1989.
- 16) 이승미, “주부가 지각한 시간계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 17) 이연숙 외,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공모과제 제1호, 1991.
- 18) 이연주,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4호, 1984.
- 19) 이영분, “주거형태에 따른 도시 주부들의 식품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2.
- 20) 이용학,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대 박사학위논문, 1985.
- 21) 이원애, “장류 소비성향과 그의 미래 예측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3.
- 22)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2호, 1984.
- 23) 이정우, “가족성원간 가사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6권 2호, 1972.
- 24) 이정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중대 석사학위논문, 1985.
- 25) 이재희, “도시주부의 가사관련 서비스 구매활동에 관한 연구(1)—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고신대 논집, 제17호, 1989.
- 26) 이형실,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 27) 이현주, “주부의 여가활동 유형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 28) 이혜옥, “개인의 가치관과 식생활과의 관계분석”,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4.
- 29) 장윤희,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 30) 정연주, “도시 가정의 가사노동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6.
- 31) 정지영,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와 그에 따른 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90.
- 32) 조성은, 문숙재,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1991.
- 33) 한경미,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 34) 한경선, “한국 가정의 일상식의 구조와 그 관리에 관한 연구”, 중대 석사학위논문, 1986.
- 35) 한국 여성 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1986.
- 36) 홍두승, “한국사회계층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법문사, 1983.
- 37) 大森和子, 好本照子, 呵部和子, 伊藤ヤツ, 天野寛子 共著, 家事労働, 東京:光生館, 1981.
- 38) Abdel-Ghany, M. and Nickols, S.Y., “Husband / 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rch journal*, Vol.12, No.3, 1983.
- 39) Anderson, B.B., “Working Women Versus Non-Working Women : A Comparison of shopping Behavior”, *Combined Preceedings*, 1972.
- 40) Bellant, D. and Foster, A.C.,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1, 1984.
- 41) Douglas, S.P., “Working Wife Versus Non-working Families : A Basis for Segmenting Grocery Markets”, in *Advance in consumer Research*, Vol.3, ed., 1976.
- 42) —————, “Cross-National Comparisons and Consumer Stereotypes : A Case Study of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in the U.S. and Fra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3, 1976.
- 43) Goebel, K.P. and Hennon, Cb.,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Wives Employment Status in the Family life Cycle, Meal Preparation Time, and Expenditure for Meals a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 Economics*, Vol.6, 1982.
- 44) Hafstrom, J.L. and Dunsing, M.M., "Socioeconomic and social-Psychological Influences on Reasons Wives Work",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5, 1978.
- 45) Heck, R.K.,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7, 1983.
- 46) Henze, V., "Household Production-An Exampl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 7, 1983.
- 47) Kluckon, Clyde and Others, "*Values and Value-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in Talcott Parsons and Edward 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 48) Nickols, S.Y. and Abdel-Ghany, M., "Leisure Time of Husband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2, No.2, 1983.
- 49) ————— and Fox, K.D., "Buying Time and Saving Time :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0, 1983.
- 50) ————— and Metzen, E.J., "Housework Time of Ho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7, No.2, 1978.
- 51) Osmond, M.W. and P.Y. Martin, "Sex and Sexism :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 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7, 1975.
- 52) Parelius, A.P., "Emerging Sex-role Attitudes, Expectations, and Strains among Collegs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7, 1975.
- 53) Relly, M.D.,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8, 1982.
- 54) Reynold, F.D., Crask, M.R. and Wells, W.D., "The Modern Feminine Life Style", *Journal of Marketing*, Vol.41, No.3, 1977.
- 55) Sanik, M.M., "Division of Household Work : A Decade Comparison 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0, No.2, 1981.
- 56) Scazoni, J., "Sex Roles, Economic Factors, and Marital Solidarity in Black and Whit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7, 1975.
- 57) Strober, M.H. and Weinberg, C.B.,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6, 1980.
- 58) Talcott, Parsons and R.F. Bales,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we, ill : The Free Press, 1955.
- 59) Vanek, J., "Time Spent in Housework", *Scientific American*, Nov. 1974.
- 60) Worker, K.E., "Household Work Time : Its Implication for Family Decisi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5, 1973.
- 61) ————— and Woods, M.E., *Time use :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6.
- 62) Wheeler, C.L. and Arvey, R.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0, No.1, 1981.